

골롬반 선교

2026년 봄호

vol.133



“변화와 희망의 선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6년 봄호 vol.133

- 03 마음을 여는 글 | 김종근 알렐루야!
- 04 젊은 골롬반 | 동리춘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 06 골롬반 순교자 | 재클린 니 크리번 드토위
그대 핏속에 왜 한국이 살아있는지 묻는다면
- 10 한국 이야기 | 함편익 생명과 평화의 춤을 춥시다
- 12 대만 이야기 | 배시현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
- 14 이주민·난민과 동행 | 앨버트 발바스트로 함께한다는 것
- 16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이제훈 신부 편 가자 아이이?
- 20 칠레 이야기 | 노승준
끝까지 동반해 주시는 예수님
- 22 기억할 선교사 | 편집실 참 목자 함 브렌단 신부
- 24 생물다양성 | 셴 맥도나
내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지금 어디에 있을까
- 25 함께 읽고 함께 쉬고
- 26 후원회
- 28 골롬반 소식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표지: 올해 1월, 필리핀에서 열린 “젊은 골롬반 선교사 회의”에 참가한 사제 회원과 평신도선교사들이다. 다양한 나라 출신으로 여러 대륙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1920년에 파견된 첫 골롬반 선교사들(위 사진)의 선교 정신이 자신에게 뿌리내려 있음을 확인하였고, 용기와 희망을 품고 오늘날 선교에 응답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발행일 2026년 4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권세오 신부 | 편집장 김종근 신부 | 부편집장 동리춘 신부 | 편집위원 권은정, 권숙정, 이기창 | 취재편집 김소영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서울프로아트

| 마음을 여는 글 |

알렐루야!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편집장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커다란 외침은 우리 신앙의 오래된 표현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 환호성 “알렐루야”는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바로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어려운 일을 이겨낼 힘을 얻고,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칠레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걸었던 삼십여 년에 걸친 선교사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선교 잡지 『골롬반선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방선교라는 이름으로 35년 전 1991년에 창간한 계간지 『골롬반선교』가 어느덧 통권 133

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골롬반회 선교사의 활동을 독자들과 나눈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면의 제한 등 이유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더 많은 선교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선교사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새롭게 함께하게 된 동리춘 베드로 신부를 소개합니다. 중국인 회원인 동 신부의 더 넓고 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선교 잡지가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잡지를 마감하는 시간에 우리 회 안광훈 로베르토 신부님의 선종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제 평화로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60년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던 고인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함께 견습니다

동리춘 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9년 1월 본회 창설 백 년 만에 중국인 최초 골롬반회 사제가 되었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현재 골롬반회 서울 본부 성당 중국어 미사 등 재한 중국인 공동체와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골롬반선교' 부편집장 소임을 맡았다.

우리 선교회의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도직 활동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아래 명확하게 식별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직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본회는 2025년 2월부터, 이 식별 과정의 일환으로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젊은 회원(2005년 이후 수품자)들이 매월 화상 모임에서 만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회의는 젊은 회원들이 서로에 관한 이해를 보다 넓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공동 인식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저 역시 매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인 서로의 이야기 속에는 상처와 기쁨, 두려움과 희망, 불안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비록 이 공동체에 홀로 중국인임에도, 오히려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신뢰받고 돌봄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월 이어진 온라인 모임은 우리를 한곳에 모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각자 손에 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에는 희망을 품고 세계 각지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달려갔습니다. 2026년 1월 9

1월 필리핀에서 열렸던 '젊은 골롬반 선교사 회의'



'젊은 골롬반 선교사 회의'에 참석했던 (왼쪽부터) 심홍석 신부, 서경희 신부, 권태문 신부, 동리춘 신부가 이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을 들고 있다.

- 우리 골롬반 선교사들은 공동 책임과 공동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반자로서 함께 걸으며,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하느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직, 겸손, 희망, 용기, 신뢰,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의무적 참여, 형제애, 변화를 이끄는 친교에 헌신한다.
- 작고, 상호문화적이며, 신실한 외방선교회로서 우리는 통합된 지부/선교단위체에서 협력하며, 우리 회 선교 우선순위인 이주민과 난민 사목, 생물다양성 보호와 회복에 창의적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골롬반 선교와 현존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 젊은 골롬반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2026년 1월 20일)

일, 40여 명의 젊은 골롬반 선교사들이 북부 도시 바기오에 모여 2주 동안 모임을 하였습니다. 40명이라는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400명, 4,000명, 그 이상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그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진행한 데니스 신부는 먼저, 매달 진행했던 온라인 모임에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1년을 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안 서로의 목소리뿐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분 목소리에 이끌려 과거를 성찰하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골롬반 국제신학원 원장 핀바 맥스웰 신부는 우리 회의 역사와 창립 정신, 성 골롬반의 선교 영성을 바탕으로 젊은 회원들이 다시금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갈릴래아로 돌아가라고 초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후안 신부는 본당사목 경험을 나누며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진정 양 떼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손과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삶의 고통 앞에 같이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 주제 강의 끝나면 소그룹으로 나뉘어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종교 간 갈등, 기후와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하며 극복했는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노력,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용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낮선 사이에서 친숙한 사이로, 그 다음은 형제자매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 가는 순례길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견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그리고 함께, 견습니다. 후원회원, 독자 여러분께도 이 희망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청합니다. ✞

그대 뒤편에 왜 한국이 살아있는지 묻는다면

하느님의 종 손 프란치스코 신부 후손의 한국 방문기

재클린 니 크리번 드토위
Jacqueline née Creaven d'Towey

아일랜드 로스커먼주에 살고 있다. 한국전쟁 순교자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후손이며, 지역 사 연구가로 일하면서, 골롬반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 한국 여행은 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역사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때, 저는 그날 아침 눈을 뜨며 간밤에 꾸는 꿈이 현실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 내용은 제가 서울에서 주최한 음악회에서 소프라노인 조카가 공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이처럼 확신을 느낀 꿈은 태몽 말고는 유일했기에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와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인물은 아일랜드 골웨이 헤드포드 출신 골롬반 선교사 프랜시스 캐너벤 신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잡혀가 북한에서 순교한 손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헤드포드는 제 아버지 고향이며, 프랜시스 신부의 어머니 성은 제 할머니와 같은 “카인(Kyne)”입니다. 두 분은 아마도 사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춘천교구청에서 태피스트리 사본 전달 예식을 마치고
총대리 신호철 토마스 신부를 비롯한 교구 사제들과 함께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프랜시스 캐너벤 신부(Francis Canavan, 손 프란치스코)

- 1915년 2월 15일: 아일랜드 골웨이 헤드포드 출생
- 1940년 12월 21일: 사제수품, 2차 세계대전으로 파견되지 못하고 고국에서 사목
- 1948년 1월: 한국 파견, 춘천지목구장 구인란 토마스 주교 보좌
- 1950년 7월 2일: 북한군에 피랍, 북한 지역으로 죽음의 행진
- 1950년 12월 6일: 북한 중강진 포로수용소에서 병사하여 그곳에 묻힘 (춘천교구 죽림동 순교성지에 가묘가 있음)

춘천 죽림동성당으로 미군 소령이 찾아와 구인란 주교와 손 프란치스코 신부에게 피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구 주교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신자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하며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구 주교는 손 신부에게는 피신하라고 거듭 말했지만, 손 신부는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남아 몬시뇰님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일주일 후, 주일미사를 집전하던 중 두 사제는 북한군에게 끌려가 투옥되었다. 홍천에서 끌려온 조선희 필립보 신부도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 갇혀있던 다른 성직자들, 수도자들과 같이 북한 지역으로 끌려

가는, 이른바 죽음의 행진(전쟁 중 포로들을 가혹하게 다루며 이동시켜 다수가 사망)을 겪었다. 굶주림, 추위, 질병, 공포, 이별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도우며 신앙으로 견디었다.

손 프란치스코 신부는 포로 생활 중 걸린 폐렴이 직접 사인이 되어 차디찬 북한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 선종 직전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동료에게 “나는 성탄절 만찬을 천국에서 먹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구인란 주교와 동료들은 그를 포로수용소 근처, 순교한 교황 사절 패트릭 번 주교 옆에 묻었다. 1950년 12월 6일, 그의 나이 35세였다.

2024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신부가 활동했고, 가묘가 있는 춘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죽림동성당 순교자 묘지와 추모비 앞에 서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남긴 유산과 제가 만난 한국인들이 순교자들에게 갖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 보다 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여행에서 순교자들의 삶, 특히 순교 75주년(2025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아일랜드로 돌아온 뒤 꿈에서처럼 한국에서 공연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콘서트 기획 경험도, 전문 지식도 없기에 여러 역사학자, 음악가, 정치인, 행사 전

문가들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콘서트 기획하기는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태피스트리*(뒷장에 설명) 작가 프랜시스 크로우 씨의 전시회에 갔다가 콘서트 대신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태피스트리에 담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가에게 연락했고, 태피스트리 제작을 의뢰하여 긴 작업 끝에 2025년 7월 <기억으로 짜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기억, 감정, 자긍심, 겸손, 감사, 인류에 대한 희망, 아일랜드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아름답고도 다채로운 상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해 왔던 그 연결고리가 태피스트리를 통해 제 눈앞에 선명히 펼쳐졌습니다.



프랜시스 크로우(Frances Crowe), <기억으로 짜인(Woven into Memory)>, 2025년, 양모 실로 직조한 태피스트리, 170 x 115cm, 한국전쟁기념관 소장

이 태피스트리(실로 짜서 표현한 그림)를 기획한 필자 재클린 씨는 “순교자들의 신앙과 복음 선포 정신을 표현하고, 순교자들이 자신을 바친 한국과 그들 고향 아일랜드의 아름다움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연결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재클린 씨는 이 그림으로 아일랜드 여러 곳을 다니며 골롬반 순교자들의 삶을 소개하였고, 작년 12월 6일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기일에 즈음하여 한국에 와서 광주대교구, 춘천교구 등에 사본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 원본을 기증하였다.

태피스트리 안에는 본회故 케빈 오록 신부(한국 선교, 2020년 선종)의 시가 있다. 재클린 씨는 작가에게 오록 신부의 시 <네 핏속에>를 전달하였고, 시에 영감을 받은 작가는 보다 다채로운 상징이 가득한 작품을 완성했다.

- 하늘 빛 부활의 희망
- I V IX 한국전쟁에서 희생한 아일랜드인 159명을 나타내는 로마 숫자 1, 5, 9
- 녹색의 아일랜드 지도와 푸른 배경 아일랜드의 풍요로운 초원과 전 세계로 파견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 켈틱 십자가, 국기 순교자 7위의 출신 나라 표현
- 흙을 킁 두 손 흘러내리는 흙 신앙의 씨 뿌림과 성장
- 눈 속에 핀 설강화 겨울을 견디고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첫 번째 꽃으로 오록 신부의 시 구절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꽃”을 시각화
- 동생을 업은 아이 전쟁의 아픔
- 언덕 위 사람들 전쟁 중 포로로 끌려가 죽음의 행진을 겪는 중에도 서로를 돕고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

실과 순교자의 이야기를 연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계보학자이면서 이전에 재봉사와 의상 디자이너로 일했던 제게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여러 이야기를 연결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일랜드와 한국 사이에는 문화, 교육, 제조업, 무역, 농업, 문학, 종교 등 많은 면에서 연결고리가 있지만, 제가 발견한 두 문화 사이에 가장 분명한 연결고리는 “공감”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한국 방문 때, 그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단박에 설명하고 표현할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한(恨)”입니다. 춘천 죽림동성당 순교자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곳 신부님이 아일랜드 옛 노래를 들려주며 한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이야말로 모두가 지닌 고통의 아름다움이며, 이 한의 정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감하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2024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러모로 무리한 여행이었지만, 그 보상은 몇 년 동안 저를 이끌어 불러주던 장소에 제가 와있다는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모두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인류의 일부로서 연결되기를 기꺼이 바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상점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들어주었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아일랜드-한국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순교한 골롬반 사제들의 다른 친척들과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순교자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토록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왜 이 연결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연결됨은 강한 열망이며, 우리 선조들의 순교 정신 일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행진을 기록한 영화 「영광의 길」의 촬영 현장 사진. 이 영화에는 죽음의 행진을 겪었던 구인란 주교, 조선희 신부,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행진 중에 사망한 동료를 묻고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마지막을 그려볼 수 있다.

죽림동 순교성지 손 프란치스코 신부 가묘에 꽃과 태피스트리 상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필자



네 핏속에 In the Blood

케빈 오록 Kevin O'Rourke, 번역 권은정

If you wonder why Korea is in the Blood
look to the heart,
to friends that endure,
to loyalty as green as pine and bamboo,
to flowers that bloom in the snow.

당신 핏속에 왜 한국이 살아있는지 궁금하면,
네 마음을 보라.
오래 함께해 온 친구를 보라.
변치 않고 늘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라.
겨울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꽃을 보라.

오록 신부의 시

생명과 평화의 춤을 춥시다

함편의 패트릭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으로 1995년 사제품을 받았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본당사목과 본회 신학원 부원장 등을 하였고, 2011년부터 한국지부 JPIC 담당으로 활동하면서 이주민·난민 사목을 겸하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 15주년을 한 달 앞둔 2월 13일 광화문에서, 함 패트릭 신부는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하는 미사와 피케팅(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종교 및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환경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비폭력 도구로써 예술적 표현과 공연 예술이 지닌 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적 표현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해군 기지

정문 앞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100배(절)’입니다. 이는 환경 파괴 행위 특히, 해군 기지 건설로 해안에 있던 신성한 구렁비 바위가 파괴된 것에 대한 참회를 담은 ‘양심의 의례’입니다. 불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종교를 초월한 형태로 재구성하였고, 공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공사 중단을 기원하며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신성함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한 생명체의 안녕이 다른 생명체의 안녕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비폭력에 대한 헌신적 참여, 생명과 평화의 섬인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결의를 표현합니다. 해군 기지와 섬의 지속적인 군사화에 대한 저항은 매일, 미사 봉헌과 ‘인간띠잇기’ 등 다른 의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핵발전 확대 결정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외침에 목소리를 보탬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탈핵’ 정책에서 선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삼척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막아온 많은 환경 운동가와 원로 활동가들의 커다란 실망과 우려에도 정부는 2038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편집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1차 에너지의 전체 사용량 중 각 에너지원이 차지

하는 비율)에서 핵발전 비중을 35%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원전 두 기 신설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는 26기가 가동 중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원전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와 녹색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생태 도보 순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태 순례길에 참여해서 사물놀리와 춤 공연을 접하였습니다. 흥겨운 가락과 장단, 우아한 춤사위는, 원전 에너지가 내세우는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약속에 저항하는 생명의 몸짓에 동참하자는 초대였습니다. 사물놀리는 풍요를 기원하며 들녘에서 한바탕 펼쳤던 풍물에서 유래하며, 자연의 순환 구조를 본떠 소생하는 계절과 땅의 본성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음의 ‘하늘 소리’와 낮은음의 ‘땅 소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가들은 이러한 정신을 담은 사물놀리를 다양한 현장에서 접목해 왔습니다. 북소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인 대지의 외침을 대신하여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치명적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들추어냅니다. 사

물놀이가 추구하는 신명은 공동체적이며, 한껏 북돋워진 신성한 흥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고 춤에 서툰 이들조차도 장단에 몸을 맡기게 만듭니다. 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도 그 힘에 이끌려 참여하면서, 엄숙했던 도보 순례와 탈핵 집회는 생명의 축제로 변모됩니다. 북이 내는 진동은 땅으로 퍼져 춤추는 이들의 발밑에서 대지를 울립니다. 그 울림에 맞춰 춤추며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을 보호하도록 초대받습니다. 환경 보호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공동체적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농촌 주민들의 ‘환경 정의’보다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이 ‘AI 봄’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방사성폐기물과 안전 위험은 이미 세계 최고 밀집도의 원전을 보유한 동남부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정의와 어머니 대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도 건강한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안 에너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것과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며 생명과 평화의 장단에 맞추어 계속해서 춤을 출 것입니다. ✚

1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핵에너지의 위험이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전해 주기 위해 모인 이들이 1월, 약 보름 동안 전국 생태 도보 순례를 하였다. 필자도 이들과 함께 걸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4년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원주민 타이아족이 거주하는 타이안 난산촌 지역(신주교구 관할)에서 원주민 공동체를 동반하고 있다.

새벽안개가 산허리를 감싼 어느 날, 밤새 내린 비에 감나무꽃이 우수수 떨어져 발을 덮었습니다.
“올해도 또 열매가 어려우려나...”
누군가의 낮은 한숨이 흙냄새와 함께 번집니다.

저는 대만 타이안 고산지대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산과 숲, 계곡 곁에 살며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여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생물다양성”은 먼 주제가 아니라, 오늘의 식탁과 매일의 기도만큼 가깝습니다. 산 생활은 하느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날씨와 환경 변화에 삶이 크게 흔들리기에 이곳 원주민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몸으로 배웁니다.



▲ 감 농사를 하는 가정을 도와 수확을 했던 날(오른쪽이 필자)
◀ 필자가 원주민 신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정을 진행하였을 때, 자연의 순환을 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이날 자연 퇴비를 만드는 실습을 하며 재료인 흙, 낙엽, 부식물 등을 모으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속되는 기후 변화는 이곳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고, 또 어떤 해에는 너무 많은 비 때문에 꽃이 다 떨어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태풍 뒤에 산사태가 발생해 나무들이 흠에 파묻혀 살릴 수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 문제라는 것ですよ. 이곳 사람들의 터전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무력함이 어느 날, 선교사로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며 느낀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수술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연세와 지병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 모두 병원에 대기하래.” 전화기 너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먼저 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느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이라고 절박하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한국으로 향하며 원주민 신자들과 골롬반 선교사들, 대만의 여러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남들에게 부담이 될까 망설였는데, 너무 절실해 무엇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달려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건 손이라기보다 여태까지 견뎌오신 힘겨운 시간 같았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틴 시간이 열흘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위험해도 좋으니... 제발, 나가게 해줘.”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몇몇 친구들과 눈물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제 안에서 조용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마치 하느



함께 원주민 사목을 하는 조 맥스위니 신부(골롬반회)와 필자

님께서 제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하나둘 빠지고 걷기 연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ですよ. 많은 사람의 기도가 어머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신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통해 신음하는 피조물의 절박한 외침에 더 귀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은 함께하시지만, 이 생명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도 커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희망의 빛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

함께한다는 것



앨버트 발바스트로 신부
Elbert Balastro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22년에 사제품을 받고 파키스탄에 파견되었다. 현재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바딘 지역에 있는 성 토마스 사도 본당에서 활동하며 그 지역 소수민족을 위해 사목하고 있다.

3월 사순 제3주일에 나는 카라치에 가서 필리핀 공동체 미사를 집전했다. 이 공동체 대부분은 파키스탄에 취업한 이주민들이다. 동포들과 연결되는 만남의 자리이자 전쟁 종식과 평화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사 중에 한 자매가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주었다. 카라치의 어느 호텔에 발

이 묶인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취업 하러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전쟁으로 영공이 폐쇄되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분이 되어 보름째 그곳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가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다.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우리가 건넨 위로와 동행이 그들에게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나 보다. 고향 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사이 긴장과 불안이 조금이나마 떨어진 듯 그들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이 만남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연대의 감각을 깨워 주었다. 함께 나누는 연민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필리핀 공동체는 자기들의 소중한 휴일의 휴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감으로써 단식을 실천하였고, 자기 재원과 시간을 나눔으로써 자선을 행동으로 옮겼다. 어느 자매는 호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고국 음식을 나누었다. 호텔을 나서기 전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는 고향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며,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순 시기의 여정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인 기도, 단식, 자선을 실천한 이주민 공동체에서 나는 살아 있는 ‘바야니한(Bayanihan)’ 정신을 보았다. 바야니한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돕는 필리핀 전통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의 사명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앙에 바탕을 둔 바야니한



안재선 신부, <이웃(The Neighbor)>, 2022년, 캔버스에 아크릴, 73 x 54cm

정신은 우리가 실천하는 친절과 영적 지지를 통해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세계 곳곳, 전쟁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지지는 종종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희망을 건네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발이 묶인 이주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친절과 희망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Kaja nga ai i?

가자 아이이?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편

인터뷰·권은정 루이제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공저)』,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등이 있다.



이제훈 신부의 사제서품식(2014년 서울대교구 여의도성당)

고국으로 휴가 나온 미얀마 선교 사제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를 만났다.

몇 년 전이었던가. 서울 골롬반 본부에서 이 신부를 봤을 때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굵은 금색 목걸이를 두르고 노란 염색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그 궁금중이 풀렸다. 당시 미얀마에서는 종교 비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훈 신

부는 입국 심사 때마다 보석 디자이너로 사업차 방문한다고 말해야 했다. 미얀마는 금과 보석의 나라이다. 직업에 맞게 꾸민 차림새였던 것이다. 2년 전부터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제는 목걸이와 염색 없이 선교사 신분으로 당당히 입국한다.

미얀마에서 골롬반 선교회는 1936년부터 1979년까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추방된 역사가 있다. 그리고 2015년 6월, 미얀마 미치나 교구 초청으로 골롬반회는 6명 선교사로 팀을 꾸려 36년 만에 다시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4년 11월에 서품받은 이제훈 신부가 그 팀에 속하여 파견되었다. 이제훈 신부를 본 미얀마 신자들은 돌아온 골롬반 선교사라는 의미로 ‘마립 카마이 브랑 토이(첫 번째 빛)’라는 카친족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버마라는 이름이 익숙한 미얀마는 황금의 나라이면서 불교국가이다. 전 국민이 거의 불교 신자이고 나라 어디를 가든 황금빛 불탑이 보인다. 미얀마 승려들의 탁발 문화는 세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가톨릭 신자 비중은 1퍼센트에 불과한데, 이제훈 신부가 사목하는 북부 카친 지역은 가톨릭 신자 비중이 높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하

는 골롬반회 선교사 5명 중에 원년 멤버로는 그가 유일하다. 이제훈 신부는 미얀마 골롬반회 대표이다. 골롬반 동료 사제들 사이에 그는 ‘에이스’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일 욕심이 많은 데다가 하는 일을 아주 제대로 해낸다는 말로 들린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러할진대 도대체 그의 열성은 얼마나 더 하다는 말인가?!

미얀마에 도착하여 처음 1년간 옛 수도 양곤에서 언어 공부를 했던 그는 이제 공용어인 버마어와 카친 부족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한다.

“선교 활동에서 ‘언어가 안되어도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선교 지역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미얀마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는 언어 공부에 열심이다. 기도하듯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어 선교지 언어를 익힌다.

그의 고향은 서울 여의도다. 열심한 신자인 어머니의 봉사활동에 어릴 적부터 따라다녔다. 하지만 사제의 꿈은 다 커서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서울 골롬반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성소 담당 이어돈 신부(제주 이시돌목장 사목)를 만나게 된 게 성소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입회하고, 군 복무 이후 미국 시카고로 건너가 신학 공부와 양성 기간을 보냈다. 첫 선교지 필리핀에서 2년간 활동하고, 부제품을 거쳐 마침내 사제품을 받았다. 골롬반회 입회에서 사제가 되기까지 그 시간은 내면의 변화 안에서 식별 과정을 거치고 진정한 성소를 찾아 예수님께 안기는 여정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미치나 교구에서 본당사목과 교구청 일을 해오던 그는 현재 8년째 교구 가정사목국을 맡고 있다. 그곳 신자들은 수줍음이 많고 신부님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가정방문을 하러 가는 길,
오토바이로 갈 수 없는 지역이라
걸어서 간다.



고 한다. 그래서 더욱 신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가깝게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교구가 넓기도 하고 산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소를 방문하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한다. 길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 거친 바닥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흔하다. 몇 년 전에는 어깨를 크게 다쳐 아직도 성찬례를 할 때 성체를 높이 들지 못한다. “이곳은 1960년대 한국을 떠올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난하고 뭐든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이다.

가정사목국을 맡아 일하면서 이제훈 신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한 교구가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툰 부부들 간, 관계가 어려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어 성가정을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교구 신학교에서 30여 명 신학생들의 영적지도를 맡은 것도 중요한 몫이다.

오랜 세월 군부독재가 있었던 미얀마에서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 현재도 내전 중이다. 지척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리니 성당이 파괴되는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 거르



부모 교육과 가족 워크숍을 마치고



공소 미사 중 봉헌 예절

지 않고 찾아오는 홍수와 지진 등으로 미얀마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렵다. 열악한 환경에다가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지역 신자들과 연대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이제훈 신부는 말한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구호 활동에서부터 알코올과 마약에 노출된 젊은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많다. 그는 ‘공감하는 선교사’로서 그들의 삶에서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제훈 신부가 고향 휴가를 마치고 미얀마로 돌아

갈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미치나 공항에 폭탄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미얀마는 한국 외교부가 정한 교민 출국권고 국가이고 특히 미얀마 북쪽은 여행금지 지역이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교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사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늘 그랬듯이 목사 이제훈 신부는 미얀마로 돌아가 그의 양떼들에게 큰 미소를 지으며 인사할 것이다.

“가자 아이이?(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

끝까지 동반해 주시는 예수님

노승준 요한 바오로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2020년 입회하여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다녔다. 2022년부터 필리핀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2024년에 첫 해외선교 발령을 받고 2년간 여정으로 칠레에서 선교 실습을 하고 있다.



필자가 본당 첫영성체·건진 반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교리교육을 하고 있다.

제가 사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 끝자락에 있는 알토 호스피시오입니다. 이곳은 칠레 북부 항구도시인 이끼게에서 일하는 많은 이민자가 모여서 형성된 도시로, 이끼게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안 절벽에 높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자연환경까지 한국과는 모든 것이 다른 칠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남미 선교를 꿈꿨는데, 바쁜 양성 과정 중에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칠레 선교 발령을 받고 제 마음을 묵상하는 중에 옛꿈이 떠올랐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설령 내가 잊고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작은 꿈마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하여 저는 이 파견이 하느님의 세심한 부르심이라는 믿음을 안고 칠레에 오게 되었습니다.

낮선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은 즐거우면서도 매번 높은 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조금씩 넘어서니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름 여러 개를 얻었습니다. 본당 신자들은 '내 아들', '내 친구'라 부르고, 아이들은 '미 상그레(가장 친한 친구를 뜻하는 은

어)', '형, 오빠'라고 불러줍니다. 저 역시 그들을 엄마, 아빠, 형제자매라 부릅니다. 비록 말은 서툴지라도 이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주님 안에 모두가 한 부모를 모신 형제자매임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얼마 전 저는 원인 모를 급성 장염에 걸려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누워 있으니 마음마저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멀고도 낯선 나라까지 왔을까?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쳤고, 그동안 배우고 쌓아왔던 선교사의 경험과 기도 생활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이끼게 해변도로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막 언덕과 푸른 태평양이 어우러진 그 길이 아름답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날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프고 나서 이끼게 풍경이 새롭게 보였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심겨 있었고, 다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다



본당 신자들과 함께 카르멘(가르멜) 성모 축제에 갔을 때

가을 뽀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피상적이고 마음이 산란할 때도, 열정만 앞서다 금방 식어버릴 때도, 걱정애 짓눌려 있을 때도 아낌없이 당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라는 희망을 품고 끝까지 동반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제가 칠레에서 선교사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성소 여정을 끝까지 동반해 주시길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알토 호스피시오에서 기도합니다. ✠

사막 도시 알토 호스피시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항구 도시 이끼게 풍경



참 목자 함 브렌단 신부

편집실

故 함 브렌단 신부의 장례미사가 올해 1월 19일, 60년 전 그가 사제품을 받은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제가 한국에서 본당 신부로 살았던 것, 그 자체가 큰 영광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알지 못했죠.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2018년, 『골롬반선교』가 함 브렌단 신부를 만났을 때 특유의 온화한 미소 가득

한 얼굴로 그가 한 말이다.

그는 서품 이듬해인 1957년 한국에 왔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묻자 “연민!”이라고 대답했다. “전쟁 직후라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부분 사람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도 서로 정을 나누고 함께했기

함 브렌단 (Brendan Murray) 신부

1932년 9월 22일 아일랜드 골웨이 출생
1950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1956년 12월 21일 아일랜드에서 사제수품
1957년 12월 8일 한국 도착
1958년~1960년 춘천교구 죽림동주교좌 보좌
1960년 원주교구 황성 보좌
1960년~1962년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 주임
1963년 춘천교구 양덕원 주임
1964년~1965년 원주교구 학성동 보좌
1965년~1967년 원주교구 평창 초대 주임(설립)
1967년 진부 지역에 양 목장 설립
1968년~1969년 춘천교구 진부 초대 주임(설립)
1970년~1975년 춘천교구 양양 주임
1976년~1980년 원주교구 용소막 주임
1985년~1992년 한국지부 재정 및 관리 담당
호주, 영국에서 활동 후 아일랜드 귀국
2026년 1월 16일 선종, 달간파크 성골롬반 묘지 안장

“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사람들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좋은 선교사이면서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골롬반 선교사들이 병원에 갈 때 동반하는 봉사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관대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함 브렌단 신부의 삶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故 함 브렌단 신부 장례미사 중
아일랜드 지부장 데이비드 케널리 신부의 추모사에서



심희섭 모니카 씨



동생 故 함 에이둔 신부(왼쪽)와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

에 행복한 선교사로 살았다. “일 년에 세 번 성인 세례식을 할 정도로 신자가 많았어요. 예비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지요. 교리문답을 다 외워서 줄줄 답할 정도로요. 우리는 교리교사들에게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분들이 예비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제들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을 복돋고 존경하는 본당 신부에게 신자들이 보냈던 사랑과 존경을 함 신부는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신자들과 동고동락하였기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다른 사제들에 비해 특별한 건 없다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에게서 들은 바는 달랐다. 넓은 고산 지역에서 공소를 다니며 사목하려면 차가 있어야 했다. 차 없는 지역에서 그의 지프차는 구급차가 되기도 했다.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그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품었던 그 연민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마을에 다이너마이트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다. 물론 불법이었고, 그러다가 사달이 났다. 폭탄이 물속이 아니라 손안에서 터져 버린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함 브렌단 신부는 달려가 피가 솟구치는 그를 차에 태웠다. 비포장 흙길을 두 시간 내달린 덕에 어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30년 사목하는 동안 23년을 강원도에서 살면서 평창성당과 진부성당을 지었다. 진부에 있을

때는 양 목장 책임을 맡아 운영하였는데, 강원 산간 지역에서 양 목장을 운영하여 본당 재정 자립-농촌 경제 개발-지역 공동체와 연대를 시도한 선교 사례로 평가받는다.

함 브렌단 신부의 부음을 특별히 전할 이가 있었다. 함 신부를 도와 오랫동안 본당에서 함께 일했던 심희섭 모니카 씨다. 전쟁 직후 철원성당에서 골롬반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줄곧 골롬반 사제들을 도왔으며, 지금은 골롬반 후원회원으로서 선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함 신부님에게 춘천교구장 박 토마스 주교님이 양 목장 감독을 맡기셨어요. 대관령으로 가는 산등성이에 양들을 키웠어요. 한여름에도 목장에 나가셨는데, 어느 날은 띄약벌에 화상을 입고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손은 부르트고 등이 파리처럼 부풀었더라고요. 그 상태로 잠은 어떻게 주무셨을까 싶었어요.” 그는 함 브렌단 신부가 본당을 지을 때도 또렷이 기억한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터 닦고 흙 나르고 성당 짓는 데 저희와 함께 땀흘리셨어요. 산골에서도 쉬지 않고 늘 부지런하셨지요.”

이제 함 브렌단 신부는 자기보다 5년 뒤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동생 함 에이둔(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9년 선종) 신부와 하늘 나라에서 재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한 참 목자로 기억될 것이다. ✠

내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선 맥도나 신부
Sean McDonagh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지부. 필리핀에서 선교하였고, 오랫동안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해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 참여하였다.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으로는 『기후변화』 『공동의 집』 『교회의 녹화』 등이 있다.



플라스틱은 1860년대에 존 웨슬리가 당구공 제조에 사용되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발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인기를 끈 플라스틱은 1970년대에는 생산량이 철강을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억 1,380만 톤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20년 안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9%만 재활용되며, 79%는 매립지나 환경(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현실입니다. 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와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북대서양에만 2,700만 톤의 나노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쓰레기 지대 규모는 정확한 총량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쓰레기 섬의 80%가 어업용 그물 등 폐어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지구 환경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풍화작용으로 작은 조각이 되고, 또 1μm~5mm 크기 미세플라스틱으로, 그다음은 1μm(마이크로미터) 미만 나노플라스틱으로 부서집니다. 이것이 바다, 강, 육지, 심지어 대기에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식물이

나노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야생 생물, 그들 서식처, 인간의 식량 사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교 생화학 교실은 뇌에 축적된 나노플라스틱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산유국이 반대하였고, 의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플라스틱의 오염 중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해양으로 플라스틱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벗어나 내구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로 전환해야 하며,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회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골롬반 퀴즈



	1	2				4		5	7
9		3					6	8	
					12				
				13					
10		11							
		14	15						19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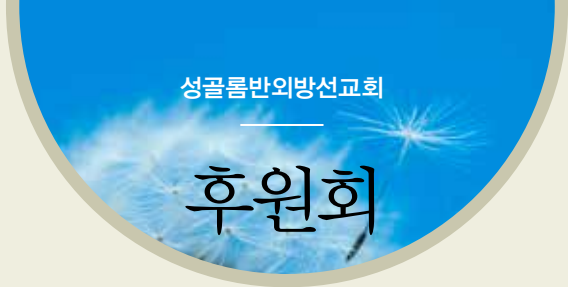
가로 열쇠

- ①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으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향해 생태적 회심을 촉구한다. 24쪽
- ② 이제훈 아오싱 신부는 미얀마 북부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다. 16~19쪽
- ③ 초미세플라스틱 입자로 해양, 육지, 대기에 축적돼 생태계를 교란하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 24쪽
- ④ 남아메리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있다. 20쪽
- 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루카 복음 24,13~35
- ⑥ 춘천교구 본당으로 홍천에 있다. 함 브랜단 신부, 공 토마스 신부, 탁승현 벨라도 신부 등이 사목했다. 22쪽
- ⑦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해안 바위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파괴됐다. 10쪽
- ⑧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끌려가 죽음의 행진을 겪다가 북한 땅에서 순교한 프랜시스 캐너벤 신부의 한국식 이름 7쪽
- ⑨ 골롬반회 순교자들의 정신을 표현한 식물 공예품. 순교자의 후손이 제작, 한국전쟁기념관에 기증해 상설 전시 중이다. 8쪽
- ⑩ 1월에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다. 한국에서 30년을 선교하였고, 평창성당과 진부성당을 지었다. 함 ○○○ 22~23쪽

세로 열쇠

- ② 이제훈 아오싱 신부는 미얀마 북부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다. 16~19쪽
- ④ 제주시에 위치한 현 하롤드 대주교 기념성당이다. ○○성당
- ⑦ 프랭크 더프가 아일랜드에서 창립한 평신도 단체로, 한국에는 1953년에 골롬반회가 도입했다. 기본 단위체는 브레시디움이다.
- ⑧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들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 ⑨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 기후변화 등 원인으로 이것이 감소하고 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므로 하나의 종이 멸종하면 다른 많은 종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12쪽
- ⑪ 조선 6대 임금 단종은 세종대왕의 적장손으로 유일하게 이것과 세손, 왕세자의 지위를 모두 경험하였다.
- ⑫ 정월 대보름날에 깨물어 먹는 견과류를 통틀어 이름
- ⑬ 2대, 4대 춘천교구장을 지냈다. 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 3년 만에 생환하였다. 권란, 구 토마스라고도 불린다. 7쪽
- ⑮ 불란서라고도 하는 유럽의 국가.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으로 유명하다. 1658년 파리와방전교회가 탄생한 나라
- ⑯ 기후변화가 원인인 바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감,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황태, 동태로도 불린다.
- ⑰ 아이돌 그룹 BTS의 한국식 이름이다. 방탄○○○

※정답은 31쪽에 있습니다.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 되면 매년 1월 15일부터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및 파일 저장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에 문의하기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kjfund@columban.or.kr

주소 변경, 중단 등 간단한 업무는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 가능하며, 카카오톡채널, 홈페이지 1:1 문의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지로 납부 관련 협조 요청

본회 사정에 의해 지로를 이용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잡지에 지로용지 12장을 동봉하였으며 용지가 소진되면 지로 납입은 불가하오니, 지로 납입 회원님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온라인 납입 또는 CMS 자동이체>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며,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지역 사무실로 변경 신청 및 문의를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강의 및 월레미사

강의: 오후 2시
미사: 오후 3시 10분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Content. Rows include 4월 24일(금), 5월 29일(금), 6월 26일(금), 8월 28일(금) with details on speakers and topics.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후원회 가입
온라인 신청



후원회 카카오톡채널



1:1 문의



전국 후원회 월레미사

26년 4월 ~ 26년 8월

Table with 8 columns: Location, 4월, 5월, 6월, 7월, 8월, 장소, 문의. Rows list various locations like 서울(명동), 서울(본부), 인천, 원주, 안산, 하안, 목포, 순천, 전주, 광주, 부산, 제주 with their respective dates and contact numbers.

- 지역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석 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명동): 4월 미사는 성주간 다음 주로 미뤄집니다.
•서울(본부), 광주, 제주: 7월 미사는 없습니다.
•인천, 원주: 8월 미사는 없습니다.
•부산(용호동): 3, 6, 9, 12월 둘째 목요일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신청해 주세요.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Table with 3 columns: Bank, Account Number, Branch. Rows include NH농협, 광주, 신한, SC제일, 우체국, KEB하나, 우리, 대구, KB국민, 부산, IBK기업은행,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안광훈 로베르토 신부 선종

안광훈 로베르토 신부가 3월 21일, 향년 84세로 선종했습니다. 장례미사는 3월 24일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주례로 봉헌했습니다.

안광훈 신부는 사제수품 이듬해인 1966년 한국에 왔습니다. 언어 공부를 마치고 원주교구로 발령받은 안 신부는 11년 동안 본당 신부로 사목하였습니다. 정선 본당 주임 시절, 고리대금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성 프란치스코 의원을 열어 지역민에게도 봉사했습니다.故 지학순 주교가 유신 정권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석방을 위한 항의와 동참 행렬에 참여하는 등 서슬 퍼렇던 시절에도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재개발 붐이 한창 일던 1981년에 안광훈 신부는 서울 목동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안양천변에 살다가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 신부는 이들에게 본당의 자리를 내어주고, 철거 반대 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새 터전(시흥시 목화마을)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물적으로도 도왔습니다.

1992년부터는 서울 달동네로 들어가 철거 위기에 몰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병상에 눕기 전까지도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IMF 위기 때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훗날 삼양주민연대)를 맡아 실업 문제 해결에 힘썼고, 저소득층 자립, 노숙인 자활 등 이 시대 의 가장 가난한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골롬반회 회원으로서 공동체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1985년에 한국지부 초대 신학원장으로 부임해 한국인 신학생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 낯선 한국에 파견된 사제 로버트 브레넌은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이들 곁에 한평생을 살면서 한국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기도한 대로 그토록 사랑한 한국에서 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께 충실했던 사제 안광훈 로베르토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 안광훈 로베르토 Robert John Brennan 신부 |

1941년 12월 1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생
1959년 2월: 입회
1965년 7월 3일: 뉴질랜드에서 사제 수품
1966년 9월 15일: 한국 도착
1968년~1979년: 원주교구 사직동·정선·단구동 주임
1981년~1985년: 서울대교구 목동 주임
1985년~1990년: 한국지부 초대 신학원장
1992년 12월: 서울 강북 지역에서 빈민사목 시작
1995년~1998년: 한국지부 부지부장
1992년~2026년: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 위원
1999년~2003년: 서울대교구 삼양동 선교본당 초대 주임
2003년~2016년: 삼양주민연대 (구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대표
2012년 ~2015년: 서울대교구 삼양동 선교본당 주임
2012년 10월 29일: 서울시 명예시민권 취득
2015년~2016년: 서울대교구 금호1가동 선교본당 주임
2016년 9월~2023년 2월: 삼양주민연대 이사장
2020년 9월 24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특별 공로)
2026년 3월 21일: 선종, 배론성지 천주교묘원 안장

골롬반 소식

서경희 스테파노 · 이정락 베라노 신부 파견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가 2월, 대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서 신부는 2014년 사제 수품 후 그해 대만에 가서 원주민 사목을 했으며 이어 중국 우한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3년간 한국지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이정락 베라노 신부가 미얀마로 떠납니다. 2025년 6월 서품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제주교구 김기량 본당에서 사목하였고, 앞으로 미얀마 북부 미치나 교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두 사제가 선교지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기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이정락 베라노 신부

제주교구, 초대교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와 골롬반 선교사들 재조명

3월 1일은 골롬반회 현 하롤드 대주교의 선종 50주기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제주교구는 이날 신성여중에서 3·1절 행사를 겸해 현 대주교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미국 출신 현 대주교는 수품 이듬해인 1933년에 첫 번째 파견 그룹으로 입국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과 제주교구장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평생 겸손하고도 착한 목자로서 품위를 간직했던 분입니다. 또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12월, 골롬반 선교사를 조명한 책 『빛을 들고 온 사람들』을 펴냈습니다. 골롬반회가 제주 선교를 시작해 교구 초석을 다지는 과정을 평신도들의 기억과 증언으로써 엮은 수기집입니다.



故 현 하롤드 대주교



제주교구 유튜브
현 하롤드 대주교
선종 50주기
기념 영상

故 오록 신부,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故 케빈 오록 신부에게 “연세를 빛낸 동문상”을 추서했습니다. 1월 13일에 열린 시상식에서 고인을 대신하여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수상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오록 신부는 1964년에 파견, 강원도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한국 문학에 매료돼 연세대학교에서 외국인 최초로 한국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다양한 장르를 번역해 세계에 알렸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록 신부는 2020년 10월 23일 선종하였으며, 춘천교구 부활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전쟁 순교자 후손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하느님의 종 고 안토니오 신부의 후손 엠마 오브라 이언 씨가 본회 전쟁 순교자 7위를 소개한 단편 다큐멘터리 『일곱을 기억하며 Remembering the Seven』를 제작하였습니다.

다. 작년 8월, 아일랜드에서 먼저 상영하여 순교자들의 삶을 널리 알렸고, 12월에 한글 자막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현직 영화 감독인 엠마 씨는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해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였고, 그 시간도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전쟁 당시와 오늘날 한국이 교차하는 가운데, 고 안토니오 신부의 조카이자 감독의 어머니 레이첼 콜리어 씨의 내레이션이 흐르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일곱을 기억하며”를 검색하거나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기

골롬반회 부제 탄생

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골롬반 국제신학원 성당에서 쿠바오 교구장 엘리야스 아우반 주교 주례로 본회 부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수품자는 필리핀 출신 래리 듀에르메 부제입니다. 부제는 현재 고향 민다나오의 골롬반회 본당인 바라 성당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래리 부제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래리 듀에르메의 부제서품식을 마치고

제31차 해외선교사 교육

1월 12일~30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제31차 해외선교사 교육이 열려 파견을 앞둔 9명(수도자 7명, 사제 2명)이 수료했습니다. 여러 수도회와 교구 소속인 이들은 베트남, 탄자니아, 파푸아뉴기니, 독일 등으로 파견됩니다. 1월 30일 파견미사를 주례한 김동원 베드로 신부(주교회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총무)는 수료자들에게 안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미사에서 수료생을 대

표하여 안정옥 수산나 수녀(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가 “교육생들과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으며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골롬반회가 참여하는 한국가톨릭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회장 남승원 신부)가 매년 마련하는 이 교육은 1999년에 시작해 총 834명(수도자 616명, 사제 136명, 평신도 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전쟁 순교자 삶 담은 식물 공예 그림, 한국전쟁기념관에 영구 기증

전쟁 순교자 7위를 기리는 태피스트리(실로 짜서 그림을 표현한 식물 공예품)가 3월 12일, 한국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제막식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날, 한국지부와 태피스트리 기증자인 재클린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야외 호국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7위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에 헌화하고, 오기백 신부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증된 작품은 3층 위리어라운지에 상설전시되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골롬반회 순교 정신과 복음 선포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관련 글 6~9쪽



(왼쪽부터)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후손 재클린 씨, 이어돈 미카엘 신부, 오기백 다니엘 신부, 권세호 곤잘로 신부가 제막식에 초대받았다.

『골롬반선교』 편집실의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1월부터 『골롬반선교』 편집장으로 김종근 도밍고 신부, 부편집장에 동리춘 베드로 신부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 신부는 33년 동안의 차례 선교를 마치고 작년 가을 귀국하였고, 중국인 화원인 동 신부는 2020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이주민 사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제는 본회 잡지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며 오늘날 골롬반회의 선교를 더 많은 분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www.facebook.com/columbankorea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https://www.youtube.com/@stcolumbankorea_1918
“성골롬반외방선교회”로 검색

골롬반회 사순 특강

2월과 3월, 마지막 금요일, 서울 본부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사순 특강을 하였습니다. <죽음 마주하기>라는 주제로 두 차례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강의했습니다. 골롬반회는 다채로운 영성 특강과 선교 체험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안내 26쪽).



열린미사에 초대합니다!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열린미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고 선교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열린 시간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미사는 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문의 선교센터 02-953-0613 mc1933@columban.or.kr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골롬반 퀴즈 정답

	찬	미	반	으	소	서	칠	레
		치				문		지
생		나	노				엠	마
물					부			이
다				구	럼	비		동
양	덕	원		인				풍
성		손	프	란	치	스	코	소
	명		랑					년
	태	피	스	트	리		브	렌
							단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피지 전통 혼례복을 입고 혼배성사를 한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정의군 가롤로 신부다.
정의군 신부는 피지의 바누아레부 섬 람바사 시에 있는 성가족 본당 주임 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 젊은이
때 매월 첫째 주일, 10시 30분
곳 서울 골롬반선교센터 2층

*참석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사제 성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해외선교를 희망하는 교구/수도회 사제 대상)
010-9937-0901 nameire@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